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25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5.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24.(목)	담당부서	에너지전환정책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4210)	담 당 자	김세민 사무관(044-203-5126)

산업부 장관, 국제에너지기구(IEA) 각료회의 참석

❶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 등 에너지 안보 국제공조
❷ 탄소중립 이행시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
❸ 러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

1. 회의개요

□ **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3.23(수)～24(목), **국제에너지기구***(IEA : International Energy Agency) **각료회의에 참석**하여,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**비축유 방출****을 **공식 승인**하는 등 에너지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기여함

*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'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
**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천만 배럴 중 한국은 442만배럴 방출 예정

○ 또한, **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**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**구체적 이행방안**을 논의하는 등 참여국 간 에너지전환 의지를 재확인함

□ 금번 IEA 각료회의는 회원국, 준회원국, 회원가입추진국, 초청국의 **장관급 정부인사**와 IEA 에너지기업협의회(Energy Business Council) 등 **주요 에너지업계 CEO**가 참여하여 개최되었음

* (회원국) 한국,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 등 31개국
(준회원국)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남아공, 태국 등 10개국
(회원가입추진국) 칠레, 콜롬비아, 이스라엘
(EBC) 엑손모빌, 쉘, 토탈, 지멘스, GE Renewables, 에어리퀴드 등

○ 금번 회의는 **COP26 기후회의**('21.11월, 英 글래스고) 개최 이후 세계 **에너지 주요 생산국, 소비국 정부 및 업계가 대거 참여**한 첫 번째 에너지 관련 주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

○ 특히 **우크라이나*를 특별초청국으로 초대**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함

* 헤르만 할루센코(Herman Halushchenko)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등

2. 각료회의(Ministerial Meeting) 주요 논의내용

□ 각료회의 참여국들은 공동선언문(Communiqué)을 채택하여, 안정적인 국제 에너지 시장을 위한 **에너지 안보 보장 노력**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**탄소중립 이행 노력**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

❶ **(에너지안보)** 보편적 경제활동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**적정 가격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**되도록 참여국간 협력하기로 함

- 특히,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, 에너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**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**하였고, 동 사태를 초래한 **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IEA 참여 권한을 제한함**

- 아울러, **브라질**과 **캐나다**는 각각 **금년 말까지 자국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 증산**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시장안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이어짐

❷ **(탄소중립)**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산, 에너지 효율 증대 등 **참여국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** 및 △**민간투자 유도,** △**難감축 산업,** △**핵심광물 안보**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**세 가지 과제**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

- **(민간투자 유도)** 참여국들은 전기화, 수소인프라 확충 등 초기 투자 비용은 높으나 탄소중립에 필요한 분야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**원활한 정부 허가**를 비롯한 **민간-정부 협업 필요성**에 공감함

- **(難감축 산업)** 또한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 탄소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대해 **수소 환원제철, 탄소포집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및 활용 관련 국가간 협력을 강화**하기로 함

- **(핵심광물 안보)**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리튬, 니켈, 망간, 희토류 등 **핵심광물 안보 확립**을 위해서도 관련 **친환경 개발 투자촉진, 공급망의 투명성·신뢰성 확보방안** 등을 중점 논의함

□ 문 장관은 발언에서 "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IEA 및 주요국과 **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**할 것"을 강조하였고,

○ "금번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하여 총 442만 배럴 방출을 추진중일 뿐 아니라, **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국제공조에도 기여할 것**"이라고 밝힘

○ 아울러, "한국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**수소, 에너지 저장장치(ESS), 에너지 IT**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확산에 힘쓰고 있다"고 언급함

○ 또한, 핵심광물 관련해서는, "**재생에너지, ESS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**"이라고 지적하고,

- "이는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바, **국가간 공동대응이 시급**하며, 한국도 핵심광물 관련 **정보공유, 비축, 재활용**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, **IEA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**"할 것임을 밝힘

3. 각료이사회(Governing Board) 주요 논의내용

□ 각료회의에 연계하여 3.24일 오후 개최된 **회원국 각료이사회**에서, 회원국은 공동성명서(Communiqué)를 추가 채택하고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**'불법 침공'을 강력히 규탄**함

○ 또한, 동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및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며, **러시아의 신속한 철수를 촉구**하는 한편,

- **IEA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파리협약에 근간한 탄소중립 이행**을 강조하고, IEA가 최근 발표한 **석유 및 가스 수요절감을 위한 10가지 중점계획**(수입국·에너지원 다변화, 효율개선, 소비절감 등) 실천을 제안함

□ 아울러, **금년 의장국인 미국**(의장: 제니퍼 그랜홈 美 에너지부 장관)은 최근 **러시아의 카스피 송유관 폐쇄**(현지시간 3.22일)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,

○ 이에 따른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한 **추가적 조치**를 논의할 것을 제안함

4. 양자면담

□ 한편, 문 장관은 금번 IEA 각료회의 계기에 파티 비롤(Fatih Birol) **IEA 사무총장**, 조나단 윌킨슨(Jonathan Wilkinson) **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**, 호세 페르난데스(Jose Fernandez) **미국 국무부 차관**, 안나 모스크바(Anna Moskwa) **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**, 알록 샤르마(Alok Sharma) **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**(COP) **의장**, 브랜든 피어슨(Brandon Pearson) **주OECD호주대사**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**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**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세민 사무관(☎ 044-203-51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